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윤지 박 민

본 논문은 각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게시물 읽는 행위, 댓글을 다는 행위,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커뮤니티 방식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는 전체적으로 사회성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 이 중 좋아요 누른 수의 경우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좋아요를 누를 경우 오히려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게시물을 읽은 수의 경우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데, 20대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0-17개의 게시물을 읽는 경우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의 게시물을 읽을 경우 사회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게시물 읽은 수는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연구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활동만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세밀하게 어떠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I. 서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실재의 세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보드리야르는 모든 것들이 시뮬라시옹(Simulation)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가상실재이다. 시뮬라크르(Simulacra)의 홍수 속인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실재가 기호로 대체되고 모

방된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들이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곳이다. 모방된 것과 실재의 관계는 역전되며 더 이상 모방할 대상, 원본이 없어진 시뮬라크르들이 더욱 실재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를 만들어낸다. 개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다. 타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본인의 이미지를 진짜 라고 믿으며 현실을 살아간다. 가상세계 속 자신들의 모습을 더 이상 무시하며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사람들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실재 현실에서 사람들의 사회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Young (1996)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이용자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지장을 받는 상태로 금단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활동장애로 정의한다. 이 연구 이후로 인터넷 사용과 현실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인터넷 사용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는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한다. 크게 쇠퇴론, 강화론, 보완론, 그리고 유보론의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쇠퇴론적 입장을 취한다.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오프라인에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강화론적 입장은 인터넷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거리나 기존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관리하게

해주며, 오프라인 활동과 융화되어 오히려 사회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완론적 입장은 강화론적 입장과 유사하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이나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온라인 활동은 현실의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인식한다. 이는 온라인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보론의 경우에는 기존의 접근들이 주장하는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어떤 온라인 활동을 행하는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2 선행연구

성한기, 안경옥(2005)은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집단이 현실에서 사회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 집단 중에서도 인터넷 사용유형을 교제형사용(커뮤니티활동, 온라인게임)과 개인적사용(정보검색, 일반게임, 쇼핑)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교제형사용 집단이 사회관계가 원활함을 보여준다. 즉, 교제형 사용자들은 인터넷 중독 여부에 큰 관계없이 사회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희, 하은혜 (2009) 에서 역시 인터넷 사용유형을 게임, 채팅, 음란물 로 구분하여 오프라인에서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채팅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주었고 음란물, 게임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안선정, 최보가 (2008) 역시 비사회적 인터넷사용(싱글 게임, 웹 서핑)과 사회적 인터넷 사용(멀티 게임, 채팅) 간에 차이가 현실의 사회관계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라인 활동이란 개념은 광범위한 것이 라 일반화 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

니다. 우리 연구는 앞으로 온라인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서 개인의 사회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III.연구 모델과 가설설정

3.1 온라인 활동과 사회성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활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일반화하기 어렵다. 우리는 온라인 활동의 내용을 커뮤니티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양식과 그 빈도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실시하였다.

구분	항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클럽에서 다른 회원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클럽에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클럽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ex. 추천, 공감, 리트윗 등)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클럽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또한 김태영(2007)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가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구에 포함 시켜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받아 들여 소위 말하는 눈팅족 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또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배영 (2003)의 논문을 참조하여 우리는 사회성을 자신의 내면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회성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현실에서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가지는 빈도수가 많거나,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 하였다.

구분	항목
사회성	지난 3개월간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는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
	정기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이 있습니까?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도 실시하였다. 개인의 성향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의 여부도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개인적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인터넷사용만의 사회성에 대한 효과가 더욱 잘 들어 날것으로 기대한다.

구분	항목
대인관계 성향	나는 관심 받는 것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남과의 대화를 즐기며 대화를 주도한다.

모든 항목들은 6점 척도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20대 성인 남녀 1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가설설정

온라인 활동이 개인들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졌지만, 일반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가설1: 각각의 커뮤니티 활동 방식은 20대의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기존의 쇠퇴론, 강화론, 보완론, 그리고 유보론 중 어느 입장이 힘을 가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온라인 활동 방식을 게시물 읽은 수,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로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광범위한 연구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가설2: 성별이 각각의 커뮤니티 활동 방식과 20대 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 역할을 한다.

김동근(2006)에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차이에 관하여 언급한다. 남녀 모두 인터넷 사용은 과거 보다 증가 하였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온라인 활동에 큰 비

중을 두는지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그 결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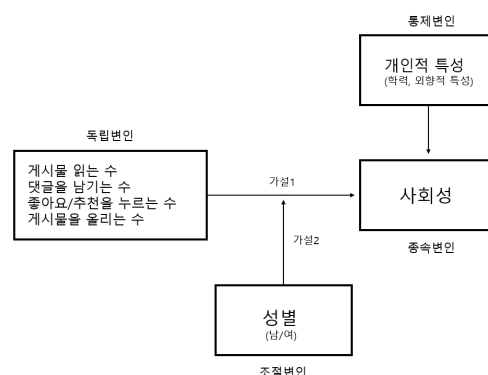


그림1. 연구 모델

IV. 분석 결과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6점 척도에 기반한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들을 3개월 기준의 평균적인 연속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1

	Dependent variable:			
	사회성			
	Read	Comment	Like	Post
성별	-0.539 (0.401)	-0.474 (0.388)	-0.484 (0.396)	-0.517 (0.385)
교육수준	-1.041** (0.515)	-0.930* (0.498)	-1.075** (0.508)	-1.080** (0.496)
게시물 읽은 수	-0.0001 (0.0002)			
댓글 단 수		-0.002*** (0.001)		
좋아요 누른 수			-0.001* (0.0004)	
게시물 올린 수				-0.004*** (0.001)
관심을 즐기는 정도	0.394 (0.268)	0.381 (0.255)	0.391 (0.261)	0.351 (0.254)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023 (0.303)	0.040 (0.288)	0.022 (0.295)	0.039 (0.287)
대화를 즐기는 정도	0.284 (0.301)	0.317 (0.290)	0.331 (0.296)	0.336 (0.289)
Observations	102	102	102	102
R ²	0.131	0.187	0.156	0.192
Adjusted R ²	0.077	0.136	0.103	0.141
Residual Std. Error (df = 95)	1.963	1.899	1.935	1.893
F Statistic (df = 6; 95)	2.397**	3.644***	2.927**	3.764***

Note: *p<0.1; **p<0.05; ***p<0.01

가설1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교육수준,

관심을 즐기는 정도,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대화를 즐기는 정도를 통제변수로 통제한 후 게시물 읽은 수,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 각각을 독립변수로 두어 총 4개의 모델을 돌려보았다. 그 결과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는 각각 20대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반면($\beta = -0.0018$, $p < 0.001$; $\beta = -0.0008$, $p < 0.1$; $\beta = -0.0035$, $p < 0.001$) 게시물을 읽은 수는 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에 사회성과 각각의 독립변수들(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모델을 더 세분화하여 돌려보았다.

	Dependent variable:		
	Model1	사회성 Model2	Model3
성별		-0.474 (0.388)	-0.462 (0.382)
교육수준		-0.930* (0.498)	-0.920* (0.491)
댓글 단 수	-0.002*** (0.001)	-0.002*** (0.001)	-0.006*** (0.002)
관심을 즐기는 정도		0.381 (0.256)	0.345 (0.252)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040 (0.288)	0.002 (0.285)
대화를 즐기는 정도		0.317 (0.290)	0.303 (0.286)
댓글 단 수**2			0.00000* (0.00000)
Observations	102	102	102
R ²	0.073	0.187	0.219
Adjusted R ²	0.064	0.136	0.161
Residual Std. Error	1.976 (df = 100)	1.899 (df = 95)	1.871 (df = 94)
F Statistic	7.892*** (df = 1; 100)	3.644** (df = 6; 95)	3.763*** (df = 7; 94)

Note: *p<0.1; **p<0.05; ***p<0.01

먼저 댓글을 단 수와 사회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댓글을 866개 이하로 쓸 경우 댓글의 수와 사회성이 반비례하지만 866개 이상으로 쓸 경우 댓글의 수와 사회성이 비례한다. 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9-10개의 댓글을 쓴 사람의 사회성이 가장 낮으며, 하루 평균 0-9개의 댓글을 쓰는 경우 사회성이 댓글의 수에 비례하여 낮아지지만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댓글을 쓸 경우 오히려 사회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표본 중 3.9%만이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댓글을 단다고 하였

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사회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Dependent variable:		
	Model1	사회성 Model2	Model3
성별		-0.484 (0.396)	-0.324 (0.399)
교육수준		-1.075** (0.508)	-1.101** (0.500)
좋아요 누른 수	-0.001* (0.0005)	-0.001* (0.0004)	-0.005** (0.002)
관심을 즐기는 정도		0.391 (0.261)	0.399 (0.257)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022 (0.295)	0.038 (0.290)
대화를 즐기는 정도		0.331 (0.296)	0.327 (0.291)
좋아요 누른 수**2			0.00000* (0.00000)
Observations	102	102	102
R ²	0.029	0.156	0.190
Adjusted R ²	0.020	0.103	0.129
Residual Std. Error	2.023 (df = 100)	1.935 (df = 95)	1.906 (df = 94)
F Statistic	3.013* (df = 1; 100)	2.927** (df = 6; 95)	3.143*** (df = 7; 94)

Note: *p<0.1; **p<0.05; ***p<0.01

또한 좋아요를 누른 수와 사회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좋아요를 800개 이하로 누를 경우 좋아요의 수와 사회성이 반비례하지만 800개 이상으로 누를 경우 좋아요의 수와 사회성이 비례한다. 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9개의 좋아요를 눌린 사람의 사회성이 가장 낮으며, 하루 평균 0-8개의 좋아요를 누를 경우 사회성이 좋아요 수에 비례하여 낮아지지만 하루 평균 9개 이상의 좋아요를 누를 경우 반대로 사회성이 높아진다.

	Dependent variable:		
	Model1	사회성 Model2	Model3
성별		-0.517 (0.385)	-0.336 (0.385)
교육수준		-1.080** (0.496)	-0.937* (0.489)
게시물 올린 수	-0.003*** (0.001)	-0.004*** (0.001)	-0.023*** (0.008)
관심을 즐기는 정도		0.351 (0.254)	0.359 (0.249)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039 (0.287)	0.060 (0.281)
대화를 즐기는 정도		0.336 (0.289)	0.317 (0.283)
게시물 올린 수**2			0.00002** (0.00001)
Observations	102	102	102
R ²	0.068	0.192	0.235
Adjusted R ²	0.059	0.141	0.178
Residual Std. Error	1.982 (df = 100)	1.893 (df = 95)	1.852 (df = 94)
F Statistic	7.318*** (df = 1; 100)	3.764*** (df = 6; 95)	4.121*** (df = 7; 94)

Note: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올린 수와 사회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게시물을 595개 이하로 올릴 경우 게시물의 수와 사회성이 반비례하지만 595개 이상으로 올릴 경우 게시물의 수와 사회성이 비례한다. 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개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사회성이 가장 낮으며, 하루 평균 0-6개의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사회성이 게시물의 수에 비례하여 낮아지지만 하루 평균 7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오히려 사회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표본 중 2.9%만이 하루 평균 6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린다고 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게시물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사회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Table5				
	Dependent variable:			
	사회성			
	Read	Comment	Like	Post
성별	0.308 (0.536)	-0.328 (0.417)	-0.208 (0.435)	-0.424 (0.393)
교육수준	-1.001* (0.504)	-0.869* (0.502)	-0.984* (0.508)	-1.060** (0.495)
게시물 읽은 수	0.0004 (0.0003)			
댓글 단 수		-0.001 (0.001)		
좋아요 누른 수			0.0001 (0.001)	
게시물 올린 수				-0.001 (0.002)
관심을 즐기는 정도	0.477* (0.265)	0.373 (0.256)	0.355 (0.260)	0.343 (0.254)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066 (0.299)	0.023 (0.289)	-0.073 (0.300)	0.010 (0.288)
대화를 즐기는 정도	0.268 (0.294)	0.310 (0.290)	0.327 (0.294)	0.351 (0.289)
게시물 읽은 수*성별	-0.001** (0.0003)			
댓글 단 수*성별		-0.001 (0.001)		
좋아요 누른 수*성별			-0.001 (0.001)	
게시물 올린 수*성별				-0.003 (0.003)
Observations	102	102	102	102
R ²	0.178	0.195	0.176	0.204
Adjusted R ²	0.117	0.135	0.114	0.145
Residual Std. Error (df = 94)	1.919	1.900	1.923	1.889
F Statistic (df = 7; 94)	2.915***	3.251***	2.859***	3.439***

Note:

*p<0.1; **p<0.05; ***p<0.01

가설2의 각각의 커뮤니티 방식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 성별과 각각의 커뮤니티 방식, 그리고 이 둘을 곱한 값을 독립변수로 두어 4개의 모델을 돌렸다. 그 결과 게시물을 읽은 수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의 경우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성별이 사회성과 게시물을 읽은 수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남/여별로 나누어 모델을 돌려보았다.

Table6			
	Dependent variable:		
	사회성		
	Male1	Male2	Female
교육수준	-1.170 (0.773)	-1.155 (0.713)	-0.888 (0.655)
게시물 읽은 수	0.0003 (0.0003)	0.002** (0.001)	-0.0004* (0.0002)
관심을 즐기는 정도	-0.006 (0.532)	-0.218 (0.496)	0.746** (0.307)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0.144 (0.544)	0.143 (0.502)	0.040 (0.370)
대화를 즐기는 정도	-0.049 (0.446)	0.081 (0.414)	0.605 (0.389)
게시물 읽은 수**2		-0.00000*** (0.00000)	
Observations	43	43	59
R ²	0.102	0.257	0.286
Adjusted R ²	-0.019	0.133	0.219
Residual Std. Error	1.936 (df = 37)	1.785 (df = 36)	1.863 (df = 53)
F Statistic	0.843 (df = 5; 37)	2.077* (df = 6; 36)	4.247** (df = 5; 53)

Note:

*p<0.1; **p<0.05; ***p<0.01

그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3개월 동안 게시물을 1584개 이하로 읽을 경우 게시물을 읽은 수와 사회성이 비례하지만 1584개 이상으로 읽을 경우 게시물을 읽은 수와 사회성이 반비례한다. 즉 20대 남성의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7-18개의 게시물을 읽는 사람의 사회성이 가장 높으며, 하루 평균 0-17개의 게시물을 읽는 경우 게시물의 수에 비례하여 사회성이 높아지지만 하루 평균 18개 이상의 게시물을 읽을 경우 반대로 사회성이 낮아진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하나 읽을 경우, 사회성이 0.0004씩 떨어진다($p < 0.1$) 이는 3개월 동안 2742개의 게시물을 읽을 경우, 사회성이 1단위씩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1개 이상의 게시물을 읽는 20대 여성은 게시물을 한 달에 1-3개 읽는 20대 여성에 비해 사회성이 1단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practically)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가 앞에서 내렸던 조작적 정의에 의해, 하루 평균 31개 이상의 게시물을 읽은 사람은 가장 높은 점수인 6점을 매긴 반면 게시물을 한 달에 1-3개 읽는 사람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매겼다. 이 6점 척도에서의 극댓값(6)과 극솟값(1) 사이에 단 하나의 사회성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대 여성의 경우 게시물을 읽은 수가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각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게시물 읽은 수,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커뮤니티 방식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요인(성별, 교육수준, 대인관계 특성)들을 통제한 후 가설1에 대한 회귀 분석 한 결과, 게시물 읽은 수는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댓글 단 수, 좋아요 누른 수, 게시물 올린 수는 전체적으로 사회성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 이 중 좋아요 누른 수의 경우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좋아요를 누를 경우 오히려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역시 외부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설2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게시물을 읽은 수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았다. 좀 더 면밀하게, 20대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0-17개의 게시물을 읽는 경우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의 게시물을 읽을 경우 사회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게시물 읽은 수는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 외에도 눈여겨볼 점은 대인관계 특성(관심을 즐기는 정도,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 각각이 사회성에 그다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자신의 내면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능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은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로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연구했다면, 이 연구는 좀 더 세밀하게 어떠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성(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할 때, 각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성(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댓글 달기, 게시물 올리기, 추천하기)의 경우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게시물 읽기)에 비해 성별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실용적 기여 측면에서도 시사하

는 바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는 20대 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능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향해야 하지만 게시물을 읽는 활동의 경우, 남성은 어느 정도는 읽게 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 게시물을 읽는 활동이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VI.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전체적으로 102명의 표본밖에 모으지 못해 연구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43명밖에 응답하지 않아 남성의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표본의 경우 학력이 모두 고졸 이상이며 중졸이하의 표본을 모으지 못했다. 여러 회귀식에서 교육수준이 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았을 때,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20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제변수들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 직업, 경제적 수준까지 고려하여 좀 더 순수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20대 뿐만이 아니라 각 연령별로 각각의 커뮤니티 방식이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동근 (2006) "온라인 활동에서의 성별차이에 관한 국제 비교: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pp.71-76

[2] 김태영 (2007)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이용과 충족이 커뮤니티 몰입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p.53-57

[3] 문동규 (2009). "새로운 문화적 질서." 『범한철학』, 55, pp.451-472.

[4] 배영 (2003).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험적 분석을 이용한 사회자본의 유형화." 『한국사회학』 37(5), pp.161-186.

[5] 안선정, 최보가 (2008).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기효능감." 『아동학회지』, 29(1), pp.33-48.

[6] 유은희, 하은혜 (2009).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pp.5-29.

[7] 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pp.475-488.

[8]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박민: 논문 I,II,III 작성
서윤지: 논문 IV,V,VI 작성